

2016년 11월 24일, 구좌읍 종달리 송미영씨 댁, 송정희 조사.  
고순안(여, 1947년생, 구좌읍 하도리)

**[제보자]** 오설룡뚝님아기. 이 하도리 오설룡뚝님아기 낫날 이 오 오설룡 오설룡님이 아덜 이 아기가 었언. 공 디련 예공녀 탄싱허난 에 어린 때에 그디 막 몰도 백쉬 쉼도 백쉬 거기 부제로 살앗주. 부제로 사난. 그 톨아기 나난 구덕에 눕져 눕져그네 흔들주. 흔들곡 영영허민. 흐룰날은 이 아기씨가 이제 바령뵈디렌 헌 건 옛날에 뵈데 응 바령뵈데 가네 이젠 그 상탕몰이렌 헌 건 큰 큰 몰. 영 경 헤그네 그 하 그 아기가 손으로 헤여그네 저 더운 설을 빼영 저 옛날엔 씻을 땀 영 행 그 그 릿에 씨천 소금 앗안 가곡. 접시 요만헌 접시 앗안 가곡 행그네 소금에 적정 먹 영 오민 듯날 아치는 종하님이 나가보면은 이 상탕몰두 죽어지곡 쉼도 죽어지거 든. 게난

“필아곡절허다.”

게난 상전 앞에 왕 들으난 이젠 종하님이

“나상 베레보라.”

게난 이 밤 왕 저 밤새에 당허나네. 아기씨가 눕던 아기씨가 눕던 아기씨가 이젠 나가네 이 논두렁에 강 그 더운 설이렌 헌 건 녹미녹설 행 먹언. 방에 들어완 구덕에 눕지난. ‘상전 앞이 머렌 골앗당 지네가 목이 걸령 죽을 거난 아니웬로구나.’ 흐룰날은

“상전님아. 오늘랑 나 상전이 강 베레봅서.”

게난 아기가 구덕에 눕지던 아기가 나오란 바령뵈디 들어가네 그 더운 설을 빼여내여네 물에 씨천 소금에 적션 먹으난 ‘이 아긴 영 행 낫단 큰일 날로구나.’ 손도 끊어불곡 발도 끊어불언 하르방이. 경 행 저 서춘 가네. 죽으렌 헨 내부난 에 어느 신춘인가 조춘 사이에 거 제주시엔가 강 허난 호첩 남의 첩으로 강 에 첩으로 강 살당 죽으난 친정에 돌아오라. 친정에 돌아오난 난데엇이 그후루 이

젠, 그 몰두 죽어가곡 쉼도 갑작시리 갑작시리 죽어가난 필아곡절헤 경 헝 문점 허난.

“아기씨가 예, 죽으렌 헝 내분 아기가 죽으난, 갈 때 올 때 엇언, 친정에 들어 왔수다.”

“경 허믄 어떻 허믄 뵈네겐?”

허난 그 곳혈 때랑 놀간 헝 산신 헝 거느령 이 산신군졸도 케우리곡 오설룡똥님 아기 언설, 단설, 녹미녹설, 설레산적 받아오던 조상 이제 저 올레로 케우리곡 산 신놀이 헤영, 산신군졸덜 제사하곡, 이제 영 허곡, 철갈이 혈 때엔 옛날에는 쉼막 이 잇어났거든. 옛 이제는 목장에 낫지만은 쉼막이 잇이난 쉼막에 허면은 철갈이 혈 때에 이 쉼막 메밧디 가그네 이 겐랄하곡 뭇 헝 강 떡이영 강 묻는 디가 잇곡 두 밧디 강 묻는 디가 잇곡, 그냥 케우려그네. 이제 감주영 술이영 케우령 그디 상 다 케우령 경 헝 가난 그 집이 간 펜안헝 부제팔명헝 살아가난 이 조상 삼년에 오 년에 혼 번 조상간장 풀령 조상간장 풀리네 영 허난네, 그 북 터지게 곱헤여그네.

- 핵심어 : 오설룡똥님아기, 소, 말, 간, 철갈이, 구좌읍 하도리